

제11차 워크숍 결과보고서

스마트 관광도시 제주, 현재와 미래

- ◆ 일 시 : 2017년 2월 28일(화), 14:00~
-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3F 대회의실
- ◆ 주 관 : 제주관광공사
- ◆ 주제발표 : 노희섭 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 ◆ 좌 장 :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 ◆ 토론(가나다순): 공주삼 (사)제주ICT기업협회 대표
 - 김근형 제주대학교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단장
 -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계장
 -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부분부장
 - 윤형준 제주 PASS 대표
 - 이민석 TNDN 대표
 - 임종호 카카오 제주사업추진협의체TF TF장
 -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제주관광 현안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매월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본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되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관광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제주 스마트관광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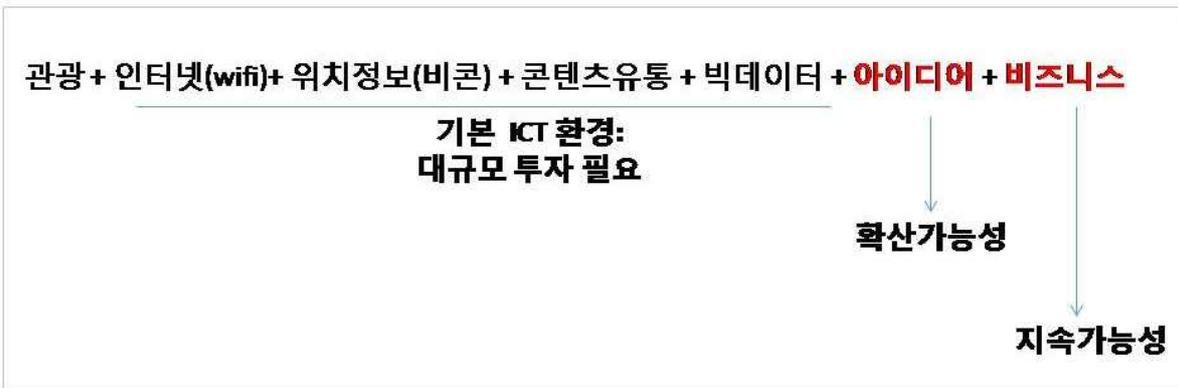
2017.02

정보융합담당관

Introduction

스마트 관광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과 통합되어 제공되는 관광정보를 실시간 소통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스마트 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정보론>



스마트 관광: 국내의 접근 방식

스마트폰 활용 중심의 접근 중심

- <스마트폰 기반 관광정보 수용과 관광상품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2013
- <스마트폰 기반 관광 정보 특성에 따른 관광 정보 만족도 및 신뢰도, 행동 의도 연구>, 관광학연구, 2013
- <관광지선택에 SNS 관광정보 특성이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012
-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스마트폰 관광 정보 시스템>, 멀티미디어학회, 2012
- <게임형 스마트폰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U-관광 서비스의 체험성, 만족 및 대도 변화의 관계>, 관광학연구, 2012
- <관광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특성과 여행소비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 관광경영연구, 2011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SNS를 통한 집객효과
영역간 연계/융합 방향성 부족

스마트 관광: 해외의 접근 방식

New Paradigm으로 접근

- <China's smart tourism destination: initiative: a taste of the service-dominant logic>,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2013
- <Study on the Value Promo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of Smart Tourism>, 2013
- <System of System Engineering and Geographical Simulation: Towards a Smart Tourism Industry Information System>, ICACT, 2013
- <Using Geo-Business Intelligence and Social Integration for Smart Tourism Cultural Heritage Platform, Enabling Technologies: Infrastructure for Collaborative Enterprise>, IEEE 22nd International Workshop, 2013
- <Mobile In-App Advertising for tourism: A Case Study>, HCI international, 2013

산업계 육성 기반
시뮬레이션, 데이터 활용
광고/마케팅/플랫폼 연동
사례 기반 연구/공유 활동 활발

스마트 관광: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 방식

산업계 육성 + 과학적 정책 + 마케팅 채널 확보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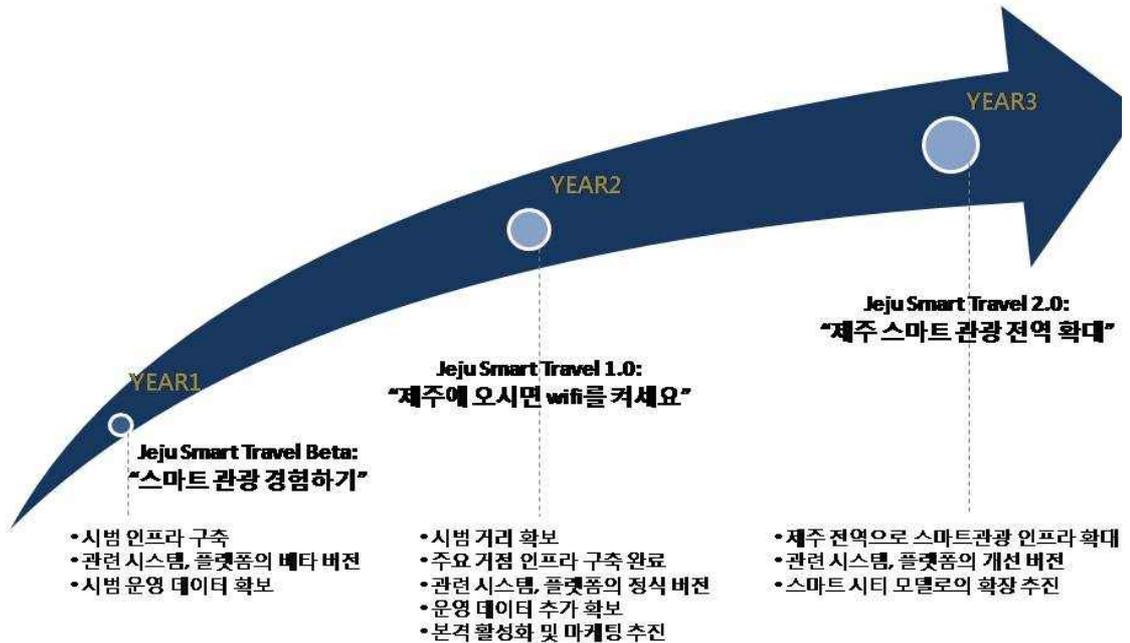
스마트 관광: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 방식

services가 아닌 ecosystem으로 접근



스마트 관광: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 방식

3개년간 추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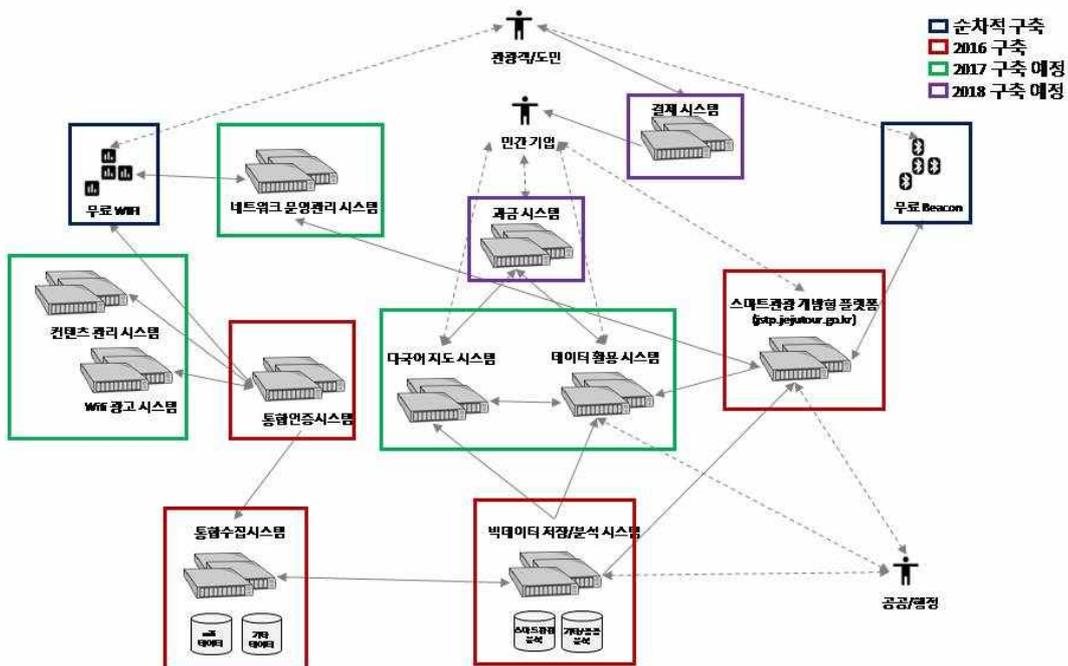


스마트 관광: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 방식

2016년도 추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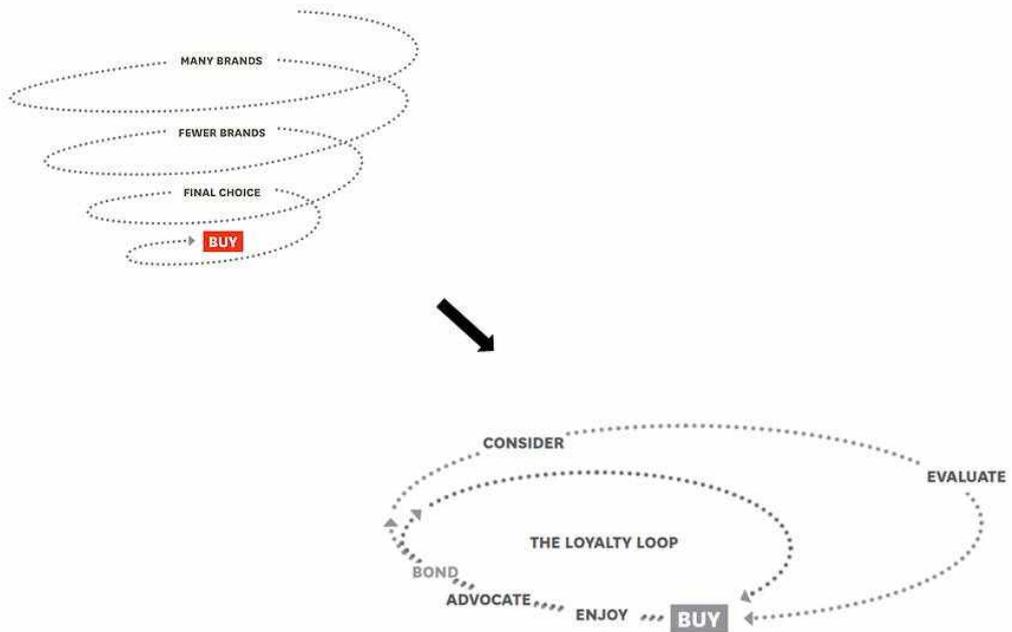
No.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
1	공공 wifi 개방 및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wifi 추가 개방 공공 wifi 추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wifi zone 600+개 추가 제공
2	공공 wifi 통합 인증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들이 1회 인증으로 24시간 공공 wifi 사용 가능 구조 구축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체류 시간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 생산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국어 기반 공공 wifi 인증 시스템 구축 1회 인증으로 24시간 공공 wifi 사용 가능
3	빅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의 wifi 접속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기타 내/외부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중단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표준화 내/외부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 구축
4	빅데이터 저장/분석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데이터의 대용량 분산 저장 구조 구축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컴퓨팅 파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8TB 급 데이터 분산 저장 구조 구축 완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완료
5	HI 증가에 따른 관광객 소비 패턴 분석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 패턴 분석 향후 관광의 질적 성장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결과 모델 설계 및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개 이상의 데이터 분석 모델 구축 완료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설계/생산 체계 구축 완료
6	개방형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콘 기반 스마트 관광 앱/서비스 개발용 오픈 플랫폼 구축 스마트 관광 앱/서비스 개발을 위한 ios/ 안드로이드용 SDK 배포 스마트 관광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대쉬보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콘 등록/관리용 개방형 플랫폼 개발 완료 앱/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위한 ios/ 안드로이드용 SDK 개발 완료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대쉬보드 개발 완료

스마트 관광: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 방식



Connectivity

Decision Journey Models



Free Wifi



Free Wifi in Jeju (2016 Mid)



Big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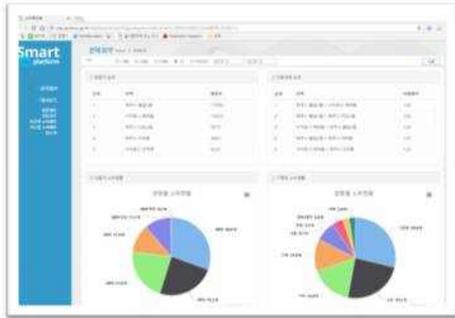
사례 (1)

WiFi 기반 관광객 이동경로 기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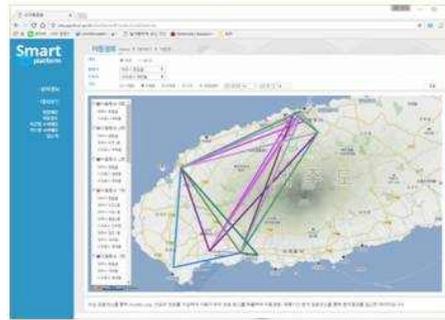


사례 (2)

비콘앱기반 관광객 행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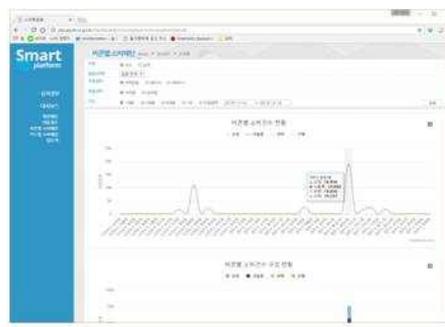
입도객현황분석



비콘기반이동 패턴/활용 패턴



방문패턴



앱활용 소비패턴

사례 (3)

FM 대응 관광객 패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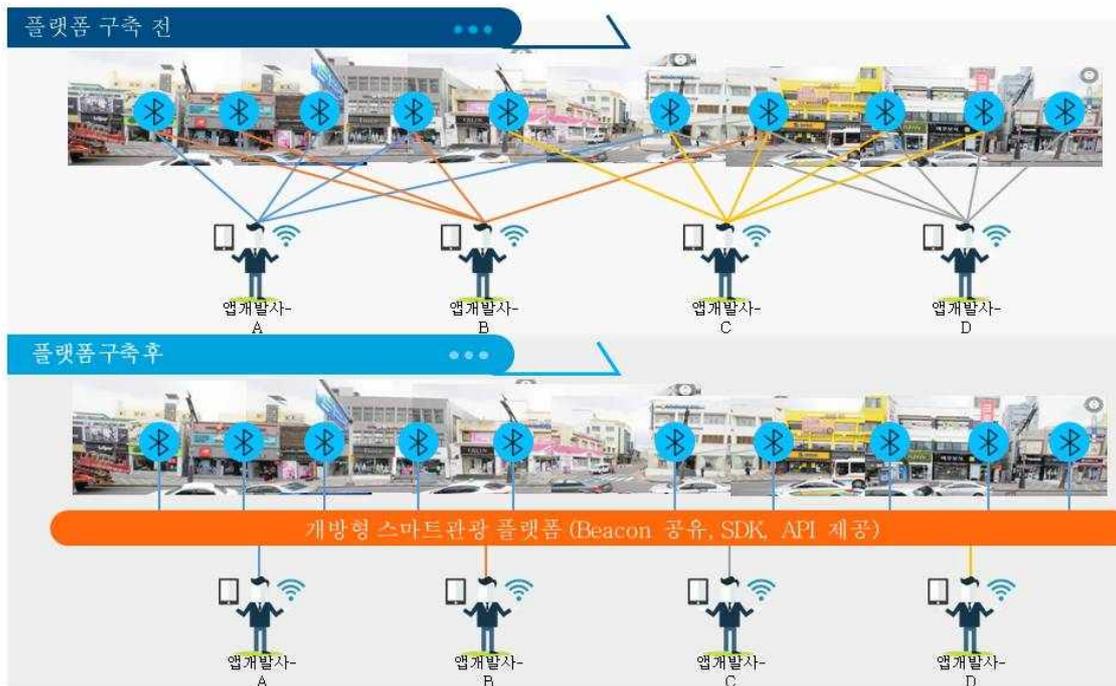
순위	구분	매출액	비율	2015-1-8	2016-1-8	증감
1	민박업	28.6	14.2%	43.8	43.8	0.0%
2	외국인관광기업	14.2	7.1%	3.0	3.0	0.0%
3	화장품	9.3	4.7%	6.2	6.2	0.0%
4	공포공기정	7.6	3.8%	1.4	1.4	0.0%
5	가방/가방비	6.2	3.1%	3.0	3.0	0.0%
6	편지	4.6	2.3%	2.5	2.5	0.0%
7	건강식품	4.5	2.3%	2.3	2.3	0.0%
8	농산물	2.9	1.4%	2.0	2.0	0.0%
9	의상제품	2.3	1.1%	2.0	2.0	0.0%
10	기념품	1.6	0.8%	1.0	1.0	0.0%
11	음식제품	1.6	0.8%	1.0	1.0	0.0%
12	휴식용품	1.6	0.8%	0.9	0.9	0.0%
13	가방/가방비	1.6	0.8%	1.8	1.8	0.0%
14	소부소재제품	1.5	0.7%	1.8	1.8	0.0%
15	여행용품	1.5	0.7%	1.6	1.6	0.0%
16	가방/가방비	1.3	0.6%	1.4	1.4	0.0%
17	수프/냉면	0.8	0.4%	1.0	1.0	0.0%
18	가방/가방비	0.8	0.4%	1.0	1.0	0.0%
19	편지	0.8	0.4%	0.7	0.7	0.0%
20	편지(4선)	0.7	0.3%	0.9	0.9	0.0%
	합계	200.0	100.0%	200.0	200.0	0.0%

유형	국적	상품 유형	채류 기간	방문 빈도	방문 도시	교통	문화/레저	소매	쇼핑	숙박	식음료	유흥
1	한국	단체	단기	구분	구분	0.0%	-0.5%	-1.0%	-0.5%	0.0%	0.0%	-0.1%
2			장기	구분	구분	-0.6%	-0.5%	-0.9%	0.3%	0.0%	1.0%	0.2%
3			단기	없음	없음	-0.8%	-0.4%	-0.2%	0.2%	0.7%	0.8%	-0.1%
4			장기	없음	없음	-1.2%	-0.7%	-0.1%	0.3%	0.7%	1.4%	0.0%
5	중국	단체	단기	최초	단독	0.0%	-0.1%	-4.0%	8.6%	0.0%	0.0%	0.0%
6				방문	교차	0.0%	-0.1%	-13.2%	18.1%	0.0%	0.9%	0.0%
7				재	단독	0.0%	-0.2%	-1.9%	2.8%	0.0%	-0.3%	0.0%
8				방문	교차	0.0%	-0.2%	-7.7%	12.4%	0.0%	-0.1%	0.0%
9			장기	최초	단독	-0.5%	0.0%	-1.5%	5.2%	0.0%	-0.2%	0.0%
10				방문	교차	0.0%	-0.2%	-3.1%	14.8%	0.0%	0.2%	0.0%
11				재	단독	-0.1%	-0.2%	1.9%	5.2%	0.0%	-0.5%	0.0%
12				방문	교차	0.0%	-0.1%	-3.3%	14.0%	0.0%	-0.2%	-0.1%
13			단기	최초	단독	0.0%	0.1%	-0.2%	0.0%	-4.9%	0.6%	0.0%
14				방문	교차	0.0%	1.5%	-9.4%	11.0%	-2.0%	0.8%	0.0%
15				재	단독	-0.1%	1.6%	1.6%	11.1%	-21.6%	0.9%	0.0%
16				방문	교차	0.0%	0.4%	1.3%	20.1%	-21.7%	1.2%	0.0%
17	장기	최초	단독	-0.1%	0.6%	2.6%	3.0%	-9.3%	0.6%	0.0%		
18		방문	교차	0.0%	0.5%	-4.1%	5.7%	-0.8%	1.3%	0.0%		
19		재	단독	-0.2%	2.1%	1.0%	9.0%	-16.4%	0.4%	0.0%		
20		방문	교차	0.0%	0.1%	-2.0%	7.2%	-13.8%	0.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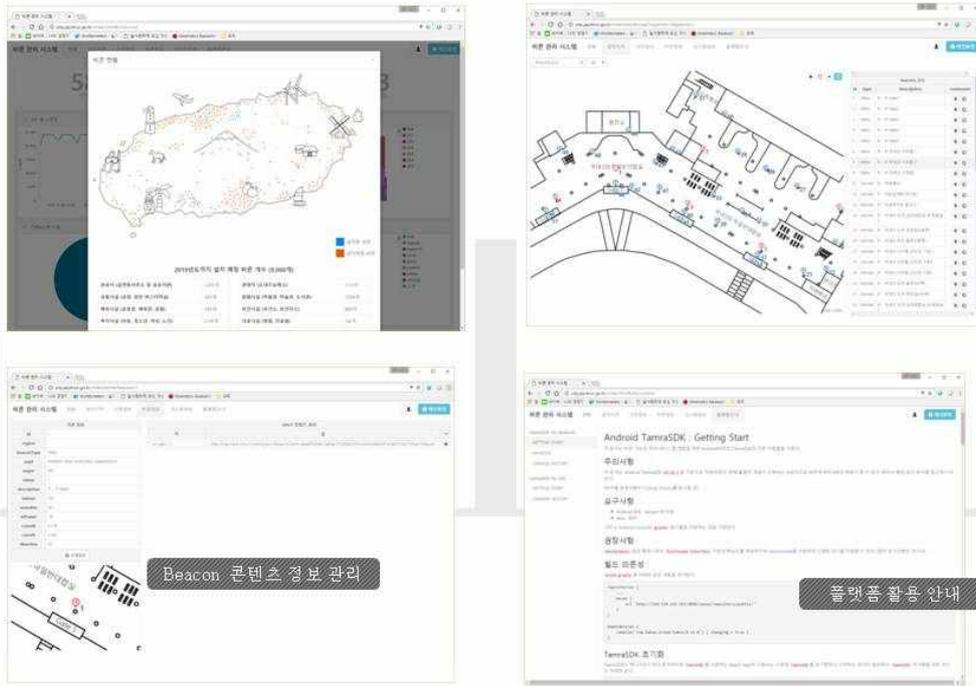
- 국내 최초의 중국인카드 소비 데이터 전수 분석
- 58개 분석 모델 설계/활용
- 관광공사, 관광국,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정책 활용 예정
- 모니터링 대상은 월간 업데이트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

Platform

파이 키우기&표준화



관리 효율화/ 코스트 절감



더욱더 코스트 절감

**Data 공개/활용
상용 플랫폼과의 연계
테스트 코스트 절감**

-
-
-

Supporting Business-Friendly & Cost-Effective

Discussion Topics

논의해 볼 만한 이슈

- 스마트 관광에서 표준화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 데이터 포맷
 - 콘텐츠 포맷
 - 데이터와 콘텐츠의 유통 구조
- 스마트 관광에서 공공과 민간이 각각 집중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 공공이 서비스에 손을 대는 것이 맞는가?
 - 민간은 어떤 식으로 공공과 협업할 수 있을 것인가?
 - 공공이 민간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어떤 플랫폼들과 협업 할 것인가?
 - 국내 플랫폼/ 해외 플랫폼
 - 기능적 플랫폼 분류
-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이동 수요 데이터
 - 면세점 매출 데이터
 - 기타등등
- 관광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하고 비즈니스는 어떤 식으로 참여 시킬것인가?
 - 마케팅/ 파트너쉽

주요 토론내용

[발제] 노희섭(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 관광이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통합되어 제공되는 관광정보를 실시간 소통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내 외국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주도는 관광 + 인터넷(wifi)+ 위치정보(비콘) + 콘텐츠유통 + 빅데이터 + **아이디어** + **비즈니스**로 스마트 관광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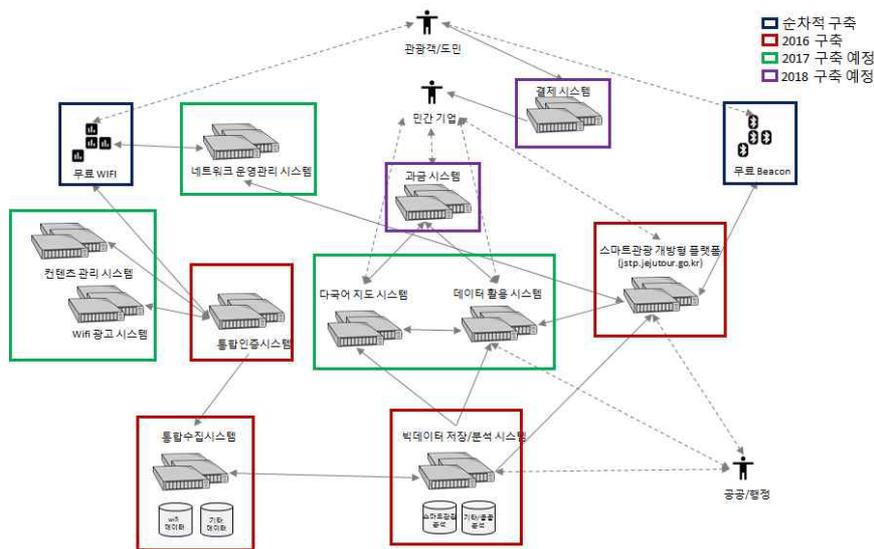
이에 서비스가 아닌 ecosystem으로 스마트 관광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민간, 공공이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제주 도정의 목표입니다. 무료 인터넷 접속 환경과 공공/민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며, 위치기반의 다국어 콘텐츠, 빅데이터 분석 모델 등을 오픈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여 비즈니스 차원으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토론내용

2016년 추진 사항(6개 사업)을 통해 제주도에 도착하면 추가 인증없이 wifi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① 공공 wifi 개방 및 구축, ②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또한 ③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180TB 수준으로 구축하고(④ 빅데이터 저장/분석 시스템 구축), 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광객 소비 패턴을 분석함(⑤ FIT 증가에 따른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모델 구축, 데이터 개방을 위한 생산체계 구축 중). ⑥ 개방형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제주특별자치도의 접근 방식



Connectivity : 인터넷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각지에서 공공이 무료 와이파이를 배포하는 이유는 다양한 구매의 경험들을 공유하라는 의도입니다. 실제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해 지역을 알릴 경우 해당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2016년 제주 공공 와이파이 존 748대 설치, 5,000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

Bigdata : 해외 관광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인데 비해 국내는 활용도가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와이파이 기반 관광객 이동 경로 기초 분석(내국인/중국인 숙박지역, 이동 경로 비교), 비콘/앱 기반 관광객 행태 분석(입도객 현황 분석, 방문패턴, 앱 활용 소비 패턴), FIT 대응 관광객 패턴 분석(카드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 유형, 체류기간, 방문 빈도, 업종별 소비금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Open platform : 도내 관련 업종이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 기업들간의 특징점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평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파이키우기 & 표준화). 비콘 콘텐츠의 통합 정보 관리를 통한 플랫폼 간의 표준화 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관리효율화/코스트 절감).

주요 토론내용

[좌장] 이재홍(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지난 주 국내·외 IT업체들을 만나면서 스마트 관광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스마트 관광과 실제 스마트 관광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4차 산업혁명이 실제 스마트 관광 영역 내에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기대됩니다.

한국관광의 스마트 관광은 아직까지 스마트 폰 관광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 속에서 실제 내 업무, 내 비즈니스, 우리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의 구현과 관련해서 정책 수립 및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준비하신 발표자께 감사드리며 주제 발표자의 토론 이슈 제안을 함께 검토하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이민석(TNDN 대표)

관광영역은 많은 영역의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관광관련 제주 벤처기업이라든지 업체의 의견 수렴이 아직까지 과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요 관광객의 루트를 살펴보면 해외 관광객의 경우 제주를 방문한 후 서울을 방문한다든지, 서울 방문 후 제주와 부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스타트업 간의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의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어느 곳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종합 소통 공간에 대한 니즈가 높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비해서 각 지역 공공기관 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평창 방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지역으로 제주도를 꼽고 있는데 각 공공기관의 연계성이 좀 더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도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스타트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수립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국 및 해외 대형 플랫폼과 협의 시 제주관광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스타트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들의 사업적 코워킹과 스타트업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공간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좌장] 이재홍(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실제 스타트 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스타트 업체들의 정보의 교류 및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 수립 및 글로벌한 플랫폼과의 협상 시 스타트 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토론] 윤형준 (제주 B&F 주식회사, 제주패스 대표)

노회섭 담당관이 말씀하신 생태계, 에코시스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관광의 3대 마차인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의 생태계 내의 포지셔닝과 역할, 그리고 기업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궁금합니다. 민간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공공영역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관광 선진국이나 해외 지자체에서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세계적인 플랫폼이 많은데 우리

는 여전히 포털 개념에 혈세를 투입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생태계 내에서 공공기관이 스타트 업과 이해관계 충돌 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주를 이끄는 콘텐츠는 이주민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겨서 많은 관광 관련 스타트 업체들이 인큐베이팅 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큐베이팅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스타트 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엑셀레이팅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인큐베이팅 펀드, 엑셀레이팅 펀드 등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엔 5억원 정도의 엑셀레이팅 펀드를 스타트 업 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깊고 세밀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등의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주도 관광을 이끌었던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가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 어떠한 상생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주요 토론내용

[토론] 공주삼(ICT기업협회 대표)

올해부터 다국어 지도시스템 사업 계획이 있는데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게 국가기본도는 5년에 한번 갱신됩니다. 지도를 만들기 위해 지리 조사하는 분들이 육지에서 내려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 제주의 기본 맵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 뿐 아니라 기본에 대한 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져서 좋은 자료가 제작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면세점에 ICT기업 중 4개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인건비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사에서 면세점에 제품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전체적으로 경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제주도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데 면세점 외에 신규 관광지나 신규 사업장에 제주도 제품이나 공연 등의 제주 콘텐츠를 전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토론] 임종호 (카카오 제주사업추진협의체 TF장)

제주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픈했을 때 카카오가 매칭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협업과 교육, 지역 서비스 등 모바일 ICT기업으로 스마트 관광에 대해 기여할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치, 공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ICT의 미덕이라고 하지만, 제주도 기반의 스마트 관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콘이라는 현장성 위주의 서비스 구조를 통해서 제주도 내 인프라를 이용한 로컬 기반의 관광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플랜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비콘 관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활성화가 부족한 이유로는 제주도에 기반을 둔 업체나 식당, 숙박 등의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인 콘텐츠 제공이나 유기적인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주도 방문객들은 인천공항 무인 출입국 시스템처럼 미리 등록된 생체정보를 통해 입국시간을 단축시키는 스마트를 원하기 보다는 제주공항 도착장에 비치된 팜플렛이나 브로슈어를 얻으려는 요구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는 제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콘을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비콘을 원하는 매장이거나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비콘을 무료로 보내주고, 업체는 자신의 매장에 맞는 정보와 현장 할인 등을 제공하여 현장 모객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 비콘도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커뮤니티 맵핑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생하고 현실성이 있는 정보를 올려주고 방문객들이 이에 접속을 하여

주요 토론내용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스마트 폰을 이용했을 때 편리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노출시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론]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부분부장)

2~3년 사이에 제주도의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 390억원을 들여 스마트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시스템이 개발될 때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주관광공사의 비짓제주는 퍼블릭 콘텐츠로, 제주도관광협회의 탐라오는 커머셜 콘텐츠로서 자료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방향으로 협업하는 속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BC 카드 기반의 자료를 공급받았는데 신한카드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현장과 접목하여 중국인 소비패턴의 비교 시 북경 직항노선 이용객 보다 인천이나 부산 등 국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의 경우 제주에서의 지출이 적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고, 이러한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 김근형 (제주대학교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단)

스마트 관광을 폭넓게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사업이나 제품에 IT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아마존에서는 독자들의 책 성향을 분석해서 추천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독자의 구매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집 근처에 미리 가져다 놓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동시에 매출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 이러한 차원에서 관광객에게 IT를 이용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활동 생명주기 모델을 보면, 관광 준비단계(조사 및 예약), 관광지 여행활동 단계, 관광 후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유용성은 관광활동 단계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행 준비단계 및 여행 후 기록을 올리는 단계에서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궁극적 목적은 민간이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거나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업 기피 이유는 창업했을 경우 수익 모델 개발의 어려움, 지속성장 가능성 및 안정성이 낮다는데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주도나 정책 담당관들에게 특장 유치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스마트 관광이 관광객들에게 지금보다 높은 편의성 제공하는 개념이라면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입도하면 버

주요 토론내용

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교통세나 환경세 혹은 IC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IT 기업들이 창업을 후 유지보수비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세금의 형태로 보전해주는 정책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교통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제 도로상 교통 혼잡 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면 버스노선의 효율적 운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오창현(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스마트 관광 정책을 인프라 측면, 산업 활용 측면, 정책개발 측면의 세 가지로 관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의 획기적인 정책은 FIT 관광객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도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이라 기대가 큽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관광객 서비스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작년에 **비짓제주(visitjeju)**를 오픈했습니다. 관광객의 정보 서비스 이용시점을 보면 관광 전, 관광 중, 관광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관광 전에는 신뢰성 높은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실제 여행으로 유도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관광 중에는 모바일 기반의 위치기반 서비스 및 타겟별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관광 후에는 사용자 참여를 비롯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4C(contents, connect, communication, customer)의 관점에서 콘텐츠는 다양성, 깊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커넥트는 연결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커뮤니케이션은 관광객과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의 기능을 넣기 위해 이번에 '여행공유'라는 사이트를 오픈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된 사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고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IC기업들이 제주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관광공사가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의 중요성 측면과 기업의 활용과 확산 측면에서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과 민간이 집중해야 할 점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 서비스로 제공



주요 토론내용

되는 공공적 데이터를 기업과 도민이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의 좋은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또한 활용하고 소개하며 홍보하는 등의 Win-Win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분석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외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부본부장)

외국의 플랫폼과 협업하고자 할 때 교섭의 창구가 막연하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에 있어 제주도의 현재 위치가 아직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이 관광의 혁신과 변화를 가져온다면 실제 생태계 속의 구성 요소들의 형태나 양식, 수익 모델이 바뀌어야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여행사도 오프라인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접목해 마케팅을 한다든가, 식당의 경우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고객 유치 및 홍보활동이 스마트 관광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술 제공, 컨설팅 혹은 콘텐츠가 생태계 내에서 매출을 발생시켜 수익모델이 만들어져야 스마트 관광의 생태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수익 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마트 관광이 체감되고 체화되어 보편적으로 보급이나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제주 스마트 관광을 위해, 외국 혹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의 현주소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상적인 스마트 관광의 목표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에서라도 먼저 스마트 관광을 위한 단계적 플랜의 정립이 필요하며 스마트 관광 생태계 내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 및 기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론] 노희섭(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이 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관광영역의 질적 성장이나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포스트 인큐베이팅에 대해서는 창조혁신센터와 논의 중이며, 계속 협의하면서 제주 지역의 융합형 관광 영역의 비즈니스 스타트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도내 기업들의 참여 유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타 지역 스타트업과의 연계에 있어 콜라보레이션 구조나 코워킹 구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유관 부서 협의 하에 프로세스 구조를 만드는 것도

주요 토론내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올해 추가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관광에 대한 다양한 모델이 제안될수록 에코시스템이 확장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먼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이민석(TNDN 대표)

단순히 카드 자료만으로는 중국 개별여행객의 이동패턴을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통계자료와 정보를 통합해서 이동경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수치가 각 기관마다 상의합니다. 따라서 해외 본토에서 판단한 통계수치도 제주관광공사를 통해 한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 내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학계에서는 대학생들이 도내뿐만 아니라 국내, 그리고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카카오나 씨트립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 관광 스타트업의 단계를 세분화해서 제주관광공사의 초기 예비창업 단계 공모전, 창조혁신센터 공모전을 통합하여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 스타트업이 제주를 방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론] 윤형준 (제주 B&F 주식회사, 제주패스 대표)

광속으로 변하는 스마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및 생태계 구성원들의 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기업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임종호 (카카오 제주사업추진협의체 TF장)

스마트 관광의 목표는 본인의 모바일 폰으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목표가 있으며,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 서비스로 옮겨지고 있으며, 제주 관광이 활성화 되어 있고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 관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관광예약을 모바일로 하는 것이 스마트 관광일 수 있지만, 이미 스마트 한 곳에 내가 노출되고 경험하는 것 또한 하나의 스마트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 스마트 시티 혹은 스마트 아일랜드의 개념으로 스마트 환경이 구축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장] 이재홍(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스마트 관광을 이해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이러한 자리 역시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업계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주관광공사에서도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공사의 역할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업계와 발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현황

○ 제11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7년 2월 28일(화)	
주제	스마트 관광도시 제주,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	제주의 스마트 관광 현황과 대응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참석자 (가나다순)	공주삼 (사)제주ICT기업협회 대표 김근형 제주대학교 관광융합소프트웨어 인력양성사업단장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계장 김남진 제주관광협회 부분부장 윤형준 제주 PASS 대표	이민석 TNDN 대표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임중호 카카오 제주사업추진협의체TF TF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 제10차 제1회 제주면세포럼 개최

일자	2016년 12월 5일(월)	
주제	제주의 질적성장을 위한 저가관광 개선방안 모색	
주제 발표	- 거버넌스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와 면세점의 상생전략(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여행산업과 면세산업, 쇼핑관광 활성화(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참석자 (가나다순)	(축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허항진 제주대학교 총장 오영훈 국회의원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토론자) 고낙천 (주)호텔신라신제주면세점 점장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분부장 감주남 롯데면세점제주(주) 대표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 단장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

○ 제9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9월 28일(수)	
주제	관광에서의 위기 및 안전관리	
주제 발표	관광에서의 위기 및 안전관리 사례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분부장 김동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과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이사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현황

○ 제8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8월 26일(금)	
주제	관광객 수용태세 대응체계의 고도화, 불만족요소 관리	
주제 발표	서울특별시관광협회 관광객 불만족 대응 사례 (최일태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대외사업본부 본부장)	
참석자 (가나다순)	고민정 제주관광공사 제주웰컴센터 관광안내소 대리 김승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팀장 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안혜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오선애 제주안내 120콜센터 센터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오흥국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왕재욱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팀 차장

○ 제7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7월 25일(월)	
주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저가패키지 개선방안 모색	
주제 발표	여행산업 저가구조 개선과제: 송객수수료를 중심으로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분부장 김주남 롯데면세점 상무 배성환 비단국제여행사대표(한국여행업미래발전협의회) 송윤심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담당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장지명 (주)세리월드 대표 정기정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실 아시아중동팀 팀장 진정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관광경찰담당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6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6월 24일(금)	
주제	제주관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주제 발표	제주관광의 핵심인재 육성 방안 (장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성과관리센터 센터장)	
참석자 (가나다순)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부장 김우신 오라관광(주) 인사총무팀 팀장 김창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양인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대외협력이사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임유미 사우스웨스트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현황

○ 제5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5월 26일(목)	
주제	관광브랜드 조명을 통한 미래전략 방향 모색	
주제 발표	관광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한국관광공사 마케팅지원실 브랜드마케팅팀 팀장)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장 고경실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강사전 제주도 공무원) 김진우 CJ E&M 미디어솔루션부문 사업1국 부장 문경호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처장 박상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임재영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차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조익준 영진경영법인 대표

○ 제4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4월 27일(수)	
주제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개선 대책에 따른 제주관광의 대응 방향	
주제 발표	중국 단체관광시장 개선 대책 및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전략시장과 사무관 왕기영)	
참석자 (가나다순)	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장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분부장 김은영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부지부장 김지훈 JIBS 취재부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장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과 교수	서대훈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업국 부장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홍유식 (주)하나투어제주 대표이사 홍종훈 제주공룡랜드 상무

○ 제3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3월 21일(월)	
주제	제주 미래관광에 대한 대안적 논의	
주제 발표	제주의 미래 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 제주 방문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향자)	
참석자 (가나다순)	고승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김종기 제주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위원 서용건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송규진 제주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신왕근 제주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교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소장	양정철 세계환경과섬연구소 특별연구원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이성은 제주관광공사 경영지원처 처장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현황

○ 제2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2월 16일(화)	
주제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및 안내체계 개선	
주제 발표	-관광품질 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한 관광발전방안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 실장 안덕수)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례 및 제주지역 적용 방안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안내소사업팀장 김현숙)	
참석자 (가나다순)	고승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관광지업 제1분과장 권오성 한국표준협회 서비스경영센터 센터장 김남선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 과장 김동훈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제주조합 정책이사 김아미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부지부장 김재환 나사렛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문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제주지회 지회장 김현숙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안내소사업팀장	김화경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안덕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 실장 오승철 제주 MBC 보도제작국장 오흥욱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이난영 한국표준협회 서비스경영센터 책임전문위원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임재영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차장 조부연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덕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

○ 제1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일자	2016년 1월 19일(화)	
주제	제주관광 질적성장 방안 모색	
주제 발표	국내·외 질적성장 지표 관리 사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장 전호재)	
참석자 (가나다순)	강석창 JIBS 보도국장 고 미 제민일보 경제부 부국장 고승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김창식 제주관광학회 학회장 김태엽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과장 문경호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처장 박운정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양호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팀장 오문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 실장 오흥욱 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오창현 제주관광공사 지역관광처 처장 윤철수 헤드리인제주 대표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임성준 세계일보 사회2부 차장 임철수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조사팀 팀장 임홍철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행정팀 팀장 장문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전호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 센터장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케팅팀 팀장

spring

happy
jeju
travel



暖春
之旅

2017

맨도롱 또똔하
봄날의 여행



THE **JEJU DUTY FREE**
济州旅游发展局免税店

제주관광공사면세점

客服中心 +82-64-766-9000

全年无休 10:00~19:00

济州中文观光区 乐天酒店6楼

Romantic Jeju

浪漫的中文
欣赏最美的晚霞

微风吹动长发
拥抱最美的自然

心动的瞬间
送给最美的你

당신에게

내생애 가장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황금빛 머리결을 휘날리는
햇살비람을

기슴 떨리게 눈물나는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합니다

没有任何地方
比中文更浪漫

중문보다
로맨틱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THE JEJU DUTY FREE
济州旅游发展局免税店

济州中文观光区 乐天酒店 6楼

T. +82 64 766 9000